“MZ 포교 구심점”…청년 전법센터 개소

대불련 총동문회 등, 4월 13일 개소식

대불련 후배 위해 선배들이 모연
1000일 기도 동안 6억 2000만원
“교육·소통·성장 요람으로 사용”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대학생·청년 포교 구심점 역할을 할 전법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 불자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전법지원센터는 청년 불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전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최승태, 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와 (사)대불(이사장 명호근)이 4월 13일 서울 종로 두산위브파빌리온 1013호에서 ‘대학생·청년 전법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했다.

전법지원센터는 대불련 후배들의 열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발원한 선배들의 동참과 모연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시작은 2021년 홍경희 제29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탓에 회원들 간 만남조차 어려웠고,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내실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 대학생전법을 위한 열린 공간 마련에 원력을 세웠고, 그 해 3월 31일 1000일 모연 불사에 돌입했다.

원력은 변대용 제30대 대불련 총동문회장이 올곧이 이어받았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10차례나 모심법회를 열었다. 1000일 모연 불사는 대불련 선배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지난해 9월 16일 대불련 창립 60주년 기념법회에서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 모연에는 307명의 사부대중과 18개 단체가 동참, 총 6억 2000만원의 건립기금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공간 매입이 진행됐고, 리모델링과 명칭 확정을 거쳐 이날 입주식을 열게 됐다.

전법지원센터에는 대불련 중앙회장 집무실과 대불련 총동문회·(사)대불 사무국이 들어서며, 청년 불자들이 각종 기획과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학생·청년 전법의 일진보를 이룰 공간으로 사용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서울 종로 두산위브파빌리온 1013호에서 ‘대학생 · 청년 전법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사진은 4월 13일 열린 개소식 모습.

최승태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전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대불련과 총동문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총동문회가 지원을 통해 뒷받침을 해주면 보다 폭넓은 전법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법지원센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해 갈 대학생 불자들도 동문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언제나 대학생 포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마음 모아주신 대불련 동문 선배들께 감사하다. 오늘 문을 연 전법지원센터는 대불련 동문 선배들께서 대불련과 대학생 포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인 결정체”라며 “선배님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전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불련이 대학생 전법의 중심이자 선도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중앙회장은 전법지원센터를 △요즘 대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방식과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갖춘 양질의 불교동아리 프로그램 연구 △대불련 동문 선배들과 재학생이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재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회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성장의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위원 위촉

위원장 혜거 스님…임기 2년
인성 프로그램 개발 · 인증 역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인증하는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4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인성교육계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명상, 상담, 교육, 예술치료,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인성교육 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향후 위원회는 △종단 공식 인성 프로그램 인증 △종단 인성 프로그램 리뉴얼 △교재개발, 강사교육 등 인성 프로그램 교육 활성화 △사찰 및 불교단체에 프로그램 보급 △대사회 심성 캠페인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사)한국명상상담심리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 광주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범우 스님, 김영래 독일 마인츠대학 철학박사, 민보현 이로움 예술심리치료연구소장, 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장, 양동효 교법사단장, 이명호 동국대 부디스트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혜거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일선에서 실행·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원이 열심히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청춘들아, 템플스테이로 모여라”

문화사업단, 청춘 템플스테이
4월 26일~ 5월 30일까지
100개 사찰, 1만원에 운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금액에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사진〉 문화사업단이 ‘청춘’을 주제로 젊은 세대만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춘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및 템플스테이를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업과 경쟁, 취업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이 사찰에서 일상을 보내며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됐다.

템플스테이 상반기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진행되며, 신청자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청춘 템플스테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청춘남녀, 봉은사서 사찰 혼례로 ‘백년가약’

4월 13일, 신도가족 적극 요청
원명 스님 주례법사 나서 축원
사찰음식공양…전법 포교 기대


4월 1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불교전통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주지 원명 스님 앞에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만발한 벚꽃으로 봄기운이 완연했던 4월 1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특별한 혼례식이 열렸다. 불교전통혼례식이 그것. 이날 혼례식에 함께한 동참자들은 신랑 신부의 새출발을 응원하며 부처님 품에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앞날을 축하했다.

40여 분 간 진행된 혼례식은 예식을 알리는 타종과 함께 양가 어머니들이 불단에 촛불을 점화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향과 등,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삼법 공양과 동자 동녀가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꽃과 향수를 뿌리는 도량결계 의식이 이어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삼귀의례와 함께 본격적인 사찰 혼례 의식이 진행됐다.

혼례의식 주례법사를 맞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입장, 부처님과 조상님에게 백년가약을 알리는 고불문을 봉독했으며 신랑 신부가 부처님 전에 7송이 꽃을 올리며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했다. 이어 혼인서약과 성혼선언, 발원문 봉독, 주례사, 봉은국악합주단 축가, 사홍서원, 행진 등을 통해 신랑 신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동참자들 앞에서 다짐했다.

이날 사찰혼례의 성사는 양가 혼주들의 힘이 컸다. 원각심 불자와 신부는 지난 3월 초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봉은사 신도이기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혼례를 사찰에서 치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신랑 측 혼주도 과거 사찰에서 혼례식을 치렀기에 이번 사찰혼례가 더욱 빛을 발했다.

혼례식 후 공양에는 사찰음식이 제공됐다. 술과 고기가 제외되고 채식으로 만든 건강한 사찰음식으로 잔칫상이 차려져 동참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은사 측은 “예식장이나 성당, 교회도 아닌 사찰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극히 드문 요즘, 이번 봉은사 전통혼례식은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불자로서 마음을 모아 사찰에서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대대적인 전법포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218-4812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